

경기도

인천 용진군,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인천광역시 용진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섬지역에 외국산 육류 및 농산물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선택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44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내용은 원산지 및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기준 이행여부, 미 표시 및 허위 표시여부 등이며,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쌀, 김치류 등이다.

강원도

춘천시, 막국수·닭갈비 세계적 음식 만든다

춘천시는 춘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인 막국수와 닭갈비를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월 3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행사 지원비로 국비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사업은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한식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춘천닭갈비와 막국수가 이 사업에 선정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33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에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가 상위권 성적을 받아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다”며 “한식 세계화 지원금으

로 2009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기간 중에 열리는 제2회 춘천향토음식 전국요리대회를 대대적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시는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내년 축제 때는 국비를 대폭 증액 신청해 국제적인 대회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9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는 오는 8월 26일~31일까지 춘천시 삼천동 소재 수변공원 일대에서 메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축사 안개분무시설 보급

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가축의 생력관리와 소독을 향상을 위해 안개분무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안개분무시설은 고온으로 인한 가축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풍장치(환풍기)를 활용한 환기시설 및 시원하고 깨끗한 물공급, 그늘막 설치로 축사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청남면 상장리 우성림(62)씨 축사 등 12개소에 안개분무시설을 시범 보급해 쾌적한 환경 제공, 축사 소독, 생력 관리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가축의 천적인 파리, 모기 등을 박멸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안개분무시설을 많은 농가에 보급해 가축생력관리와 생산비 절감 등 웰빙 축산을 실천할 계획이다.



당진군, '농축산 관리실' 증축

당진군이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증축한 친환경 농축산 관리실의 현판식을 200여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3일 가졌다.

이에 따라 미생물 사업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이 가능해져 기존 보다 2배 정도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으며,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및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기센터는 2001년부터 축산용 미생물을 공급하기 시작, 올해는 농업용 미생물과 함께 1,000여 농가로 확대 공급하고 있다.

육계 및 양돈에 음수투여용 고초균을 100농가에 연간 3만8,000ℓ 공급한 바 있으며, 이밖에 축사 악취감소를 위한 광합성균을 비롯해 농약 사용량 감소 및 작물생장 조절용 EM활성액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충청북도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최근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가 일찍 시작되어 식중독 발생으로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강화한다고 지난 6월 2일 밝혔다.

축산 식품은 부패, 변질이 쉬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해 8월까지 하절기 3개월간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에 미생물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 도축장 21개소, 식육포장업 124개소, 축산물판매업 1,977개소를 대상으로 오염지표 세균 2종과 주요 식중독균 6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위생연구소는 특히 학교급식 납품업체나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 지역을 중점 검사하여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여름철 가축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수해·장마·혹서기를 대비해 '여름철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6월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진흥연구소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혈청검사와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도 평시 방역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혹서기 폭염에 대비해 가축에게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고온다습한 기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질병예방 차원에서 비타민제, 대사 촉진제 및 칼슘·소금 등 미량 광물질을 급여토록 하고, 가축의 과다한 밀집사육을 방지하여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일사병 등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사료섭취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질병에 대한 면역력 저하로 각종 가축질병 발생이 우려되어 어느 때보다 가축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축종별 축사규모에 따라 밀집 사육을 피하고 적절한 사육두수를 유지해 축사내 환기개선으로 유해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병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했다.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농가에 해충구제 약품 배부

포항시 남구청은 하절기 축산농가 축사주변에 서식하는 해충, 파리류 등의 퇴치와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등 악취제거를 위해 해충구제 약품 220ℓ 와 악취제거용 탈취제 150ℓ 를 구입, 축산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여름철을 맞아 주택인근지역 축산농가에 해충구제약품 및 악취제거제를 우선 배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제고와 가축전염병예방 등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라남도

순천시, 해충 발생 최소화로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

순천시는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천적과 광촉매 반응으로 유인, 퇴치 기능을 가진 포획기를 축산 농가에 지원했다고 지난

6월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해충 구제 효과가 뛰어나 지난 3월초부터 순천시 관내, 축산 농가에 160조의 해충 천적 주머니를 설치했으며 해충 유인 포획기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50대를 설치했다.

해충 포획기는 전기가 가설돼 있으면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며 포집 주머니를 비우는 것 외에는 별도의 유지 관리가 필요 없다. 특히 가축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모기 등 해충 구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시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모기가 연중 출현함에 따라 가축에 급수되는 음용수를 살균하는 한편 해충 유충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충 발생 억제 효과가 탁월한 가축 음용수 살균기 12대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해충 발생으로 인한 축사 주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축산 환경 쾌적화를 위해 해충 천적 포획기, 가축 음용수 살균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해충 발생 억제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군, 축산농가 9곳 HACCP 컨설팅 지원

해남군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6월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축산농가 9곳에 대해 4,500만원을 지원해 컨설팅을 통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축산물 생산과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



사·도·소·식

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인 HACCP 인증은 소비자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시, 전국 축산업자 HACCP 특별교육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서 모인 가축 사육업자 90명을 대상으로 축종별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연계해 지난 6월 16일 센터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HACCP의 개념을 비롯 HACCP의 7원칙 12절차, 축종별 가축사육 단계별 평가 기준 해설과 HACCP지정, 정기검사 절차에 이어 참석한 농가들로부터 HACCP 기준에 맞는 농장 시설과 위생관리, HACCP 인증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축사육 농가를 위한 HACCP 특별교육은 앞으로 2회 더 실시되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만큼 관내 가축사육 농가들이 HACCP 인증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2015년 축산농가 조수입 '2억 시대' 추진

제주도는 2015년까지 축산조수입 1조원, 농가당 조수입 2억원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지난 6

월 2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5년 축산조수입 4,725억원 대비 올해는 27% 증가한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에는 1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가당 조수입도 2005년 8,300만원 대비 31.3% 증가한 1억900만원에 이르는 한편 주요 축종 사육 2,906농가 중 20.4%인 594호가 1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분야는 타시·도 시발생 시 반입금지에 따른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부화장 2개소를 설치, 병아리 자급률을 종전 17%에서 100%로 높였다.

특히 HACCP 도계장 1개소를 설치해 제주산 닭고기 일본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계란 등급 판정제'를 실시해 계란품질 및 규격화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이뤄냈다.

가축방역 분야는 소 브루셀라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6년 연속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물보호조례를 제정·공포해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제'를 시행·운영하고 있다.

축산환경분야는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을 수립,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양질의 액비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4개소 설치, 자연순환농업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전국 최초로 지자체단위 바이오 플랜트사업을 추진해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는 세계자연유산, 악성가축전염병 청정 이미지를 중점 부각시켜 2010년 세계식육과학 기술대회(ICoMST),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